

[독서칼럼]

■ 김혁

[서적소개]

최국철의 장편소설 《락화류수》

원숭이를 위한 헌사

—고전 《서유기》를 다시 읽다



어찌구려 나는 《서유기》를 십수년에 걸쳐 판단으로 접했다.

맨처음으로는 소학시절 도문에 있는 외가집으로 놀러 갔다가 《백골정을 세번 치다》라는 연화화로 《서유기》의 이야기를 접했다. 신출귀몰 손오공에 흠뻑 빠져있는 나를 보고 외삼촌이 웃으며 손오공이 불경 취하러 가는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문에서 통정으로 가는 길보다 더 먼 길이 이제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그 재미가 연화화 한권으로도 족한데 이제 더 긴 이야기가 펼쳐진다니! 나는 그만 운몰에 소름이 돋음을 느꼈다. 독서에 대한 욕구가 나의 작은 욕신을 전율시켰던 첫 기억이었다.

당시 척박했던 문화풍토에서 명작마저도 완정본으로 읽을 수 없었다.

그다음으로는 경극영화로 접했고 다음에는 동화판으로 접했다. 영화에서 요즘의 CG 기술에는 비할 수 없으며 어수룩하나마 온갖 요괴가 변신하고,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1만 8천리를 날아오고, 휘두르는 여의금고봉이 귀 속에서 나와 삽시간에 커다란 곤봉으로 변하는 장면은 소년기의 나를 《서유기》에 흠뻑 환혹하게 했다.

그후로 완정본을 읽게 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조선말본 3권으로 출간된 뒤였다.

천년이 넘는 장구한 시간 동양세계를 매료시킨 판타지의 고전 《서유기》는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동남아

시아에서 오늘날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소설이다.

당나라 승려 현장(당승)이 서역에 불경을 구하러 가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소설은 저자거리의 이야기군들의 소재로 활용되었다가 명대에 들어 오승은에 의해 소설의 형태로 다시 태어났다. 서천으로 불경을 찾으러 길 떠난 주인공들은 온갖 요괴들을 만나 싸우고 고난을 극복하면서 자아를 완성해가는 감동의 스토리를 펼쳐보인다. 손오공 일행이 천축국으로 도착하기까지 요마와의 81년(難)을 거친다. 천상, 지하의 세계가 펼쳐지고 수많은 신과 요마가 등장함으로써 신화적인 상상의 세계를 한껏 펼쳐보는 것이다.

오승은의 천재적인 필봉에 의해 《서유기》에는 정말로 정제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 이들의 성격 또한 판이한데 오공은 용맹하지만 외골이고 저팔계는 탐욕스러우면서도 간계한 일면도 있고 사승은 충직하지만 약간 미련한 구석이 보이고 당승은 독실하고 진지하지만 우유부단한 무능력자로 그려진다.

초동머리 적에 재미로 접했던 《서유기》를 나이가 들어 다시 완독하며 주인공인 손오공이라는 원숭이에 대해 다시금 괄목(刮目)하게 되었다.

생명을 점지해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물에서 태어난 원숭이, 미후왕(美猴王)이라는 용모보다는 우미한 이름을 스스로 붙이고 그것도 모자라

‘제천대성’(齊天大聖)이라는 아름다운 작위를 스스로 내리며 치기를 뽐내기도 한다.

근면이 결여한지라 수보리조사의 문하에서 쫓겨난 뒤에도 약간의 재주와 도술을 믿고 통공의 보배 여의봉을 빼앗는가 하면 하늘의 천도복숭아와 미주, 금단을 훔쳐먹는 등 온갖 난장판을 벌린다. 천지 높은 줄을 모르고 석가여래와 맞장 뜨다가 ‘부처님 손바닥 우의 손오공’이라는 천고의 속담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그러다 결국은 바위 속에 갇혀버리는 형벌을 받게 되고 만다. 치기와 속안으로 설쳐대다가 꼼짝 못하고 다시 본래 태어났던 대로 돌이 되는 운명에 처하는 것이다.

바위틈에 끼여 움푹달짝 못하고 500년이라는 몇겹의 시간을 지내다 드디어 당승을 만난다. 이로써 손오공은 그 운명의 전환점을 맞는다.

당승은 자기 일생을 걸고 서역으로 가서 불경을 갖고 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안고 길을 떠났고 그 와중에 시종 선두에서 그의 안위를 보필한 이는 손오공이었다.

요괴들은 서천으로 구부의 길에 오른 이들의 허점만을 노려 파고든다. 당승의 자비심, 저팔계의 탐욕, 사승의 어리석음을 온갖 수단으로 건드린다. 공공연한 탐치와 험박, 부귀영화를 눈앞에서 흔들어대는 유혹, 살 떨리는 미인계 등등... 이러한 무차별 공격에 선두에서 대응한 이가 바로 손오공이다.

81년의 어려움에 당착한 오공, 하지만 손오공은 힘껏 변신술을 부리고 사납게 여의봉을 휘두르면서 악착배기 요괴들을 하나둘 섬멸해간다.

여태껏 우리는 《서유기》를 단순한 신화소설로만 여기며 단지 온갖 기괴한 요괴와 마귀들이 등장하는 령기적인 이야기로만 감상하는 데 그쳤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손오공이지만 결국 손오공이라는 원숭이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하고 있다.

근년에 다시 이 소재를 리메이크한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보면 명작의 중후함을 내쳐버린 채 단지 오락물에 치우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항항 배우 주성치의 영화에서 당승은 아낙네처럼 바가지질 끊어대는 우습감스러운 형상으로 나오며 해외의 드라마에서는 지어 당승이 녀자로 변신해 나온다. 그렇게 ‘희화화’되어 나온 캐릭터들로 명작을 접하고 이해하는 요즘의 독자들이니 어딘가 격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보면 원작에서 당승 일행이 요괴를 물리치는 하나하나의 장면은 사실 구도자를 시험하는 심마(心魔)를 물리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때로는 저돌적으로 보이는 오공이지만 취경의 의지와 우직함은 변함이 없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원숭이의 속태를 벗기 위해 싸우고 또 싸운다. 두려움과 고통과 힘들음을 직시하면서 말이다. 그는 스승과 팔계, 사승의 무정함과 물리해에도 도망가지 않고 자기를 시험하는 81년을 스스로 한몸으로 받아가며 깨달음의 계기로 삼았다. 하기에 《서유기》는 한 원숭이의 성장기요, 깨달음의 지난한 과정을 보여주는 구법기(求法記)로 읽을 수도 있다.

요즘 판타지물의 흥행으로 《반지제왕》과 《해리포터》 등 해외의 판타지물을 읽는 열조가 일고 있지만 독자들은 그 수천년전에 나온 동양 최고의 판타지 《서유기》에 대해서는 그저럼 열성을 보이지 않는다.

오늘 다시 영화, 애니메이션, 3D물 등으로 한껏 리메이크된 작품들을 새로워진 시안으로 들여다보니 《서유기》 그리고 그 당당한 주인공 손오공이 다시 보인다.

재미에만 빠져 보았던 드라마의 주제곡도 다시 들으니 그렇게 진취적이고 호매로울 수 없다.

그 림지적인 가사말을 음미하며 노래를 다시 불러본다.

길이 어데 있나 감히 묻노니
길은 발아래에 있네...

《락화류수》는 소설가 최국철이 자신의 고향을 무대로 1930년대부터 1960년대를 다룬 장편소설 《간도전설》, 《광복의 후예들》, 《공화국의 후예들》의 뒤를 이어 70년대를 배경으로 쓴 네번째 장편소설이다.

소설은 53만자의 편폭 속에 오포동이라는 협착한 공간에서 넓은 사회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고향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원하게 그리고 있어 지난 세기 70년대 전반 조선족사회의 생활상을 집약적으로 펼쳐보이고 있다.

저자는 휴머니즘을 주선으로 주인공인 박대장과 ‘나’의 생활사를 유기적으로 교차시키면서 부(富)를 향해 몸부림치는 지난 세기 70년대를 산 주인공의 굴곡적인 이야기와 사랑을 통하여 후세들에게 그 시기를 살았던 고향사람들의 아름다움과 선(善)이 어디까지인가를 집요하게 추적해 보이고 있다.



특히 소설 속에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주인공의 류벌력사를 다뤄 광복 전후 일본인들의 목재 수탈에 항거하는 조선족들의 항쟁정신과 두만강 수상운수에 대한 역사적인 공헌을 소개하고 있다. / 연변인민출판사

제 18 회 연변독서절 및 판권선전주간활동 가동



4월 26일, 연변조선족자치주당 위 선전부, 연길시당위 선전부가 주최하고 주독서협회가 주관한 제 18회 연변독서절 및 판권선전주간 가동식이 연길시에서 개최되면서 2024년 연변 전민열독활동의 서막을 열어놓았다.

가동식에서 연변 2023년도 ‘우수 열독보급인’과 ‘우수열독보급대상’을 표창하고 ‘제 18회 연변독서절 및 판권선전주간활동’ 창의를서를 랑독했다.

지난 한해 동안 연변에서는 전민독서를 전개할 데 관한 중앙과 길림성당위의 전략적 포치를 참답게 실시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를 확고히 다지는 것을 주선으로 하여 열독장기효과 기제 건설, 전민열독 브랜드 건설, 랑릴 열독 내용 추천소개, 소년아동 열독 촉진, 열독 기초시설 향상, 열독매체 선전보급 등 행동들을 둘러싸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온·오프라인 전민독서활동

들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전사회에 랑호한 독서 기풍을 형성하였다. 이번 활동은 전민독서의 고품질 발전을 한층 더 추진하고 ‘서향연변’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며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책을 읽고 책을 잘 읽는’ 랑호한 사회분위기를 함께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

이날은 24번째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로 저작권 홍보 주간 계열 선전활동도 동시에 가동되었다.

가동식 현장에는 연변문화시장이 설치되어 3일간의 무형문화유산, 문화창의와 판권 작품 전시 및 체험 활동을 전개하고 작품 판권 등록에 관한 대중의 자문을 접수했다. 선전활동에서는 시민들이 판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합리하게 운용하도록 인도하고 불법유해 출판물과 정보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성년자를 교육, 인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랑호한 사회문화환경을 조성했다.

/ 연변주당위 선전부

[독서가이드]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 옛이야기책 많이 읽게 해야

책 속에 지혜가 있고 진리가 있다. 독서는 마음을 살찌운다. 조선민족 옛이야기에는 삶의 지혜 및 삶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있다. 학생들은 조선민족 옛이야기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올바른 인생관, 세계관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소학생들을 인도하여 조선민족 옛이야기를 꾸준히 읽게 하면 좋은 점이 많다.

조선민족 옛이야기는 대부분 편폭이 길고 등장인물이 많으며 이야기줄거리가 복잡한바 소학생들이 읽기 비교적 어렵다. 학생들은 옛이야기를 재미로 읽어보려고 하면 좋아하지만 숙제로 독서필기를 해야하거나 느낌을 써오라고 하면 싫어한다. 지어 옛이야기를 아예 읽으려 하지 않는 학생도 있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내가 읽은 옛이야기>라는 제목을 내주고 옛이야기를 읽은 다음 떠오르는 생각을 글자수나 문체에 구애없이 마음대로 써오게 하였다. 한두줄씩만이라도 쓰기만 하

면 된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학생들은 누구나 부담없이 옛이야기를 읽었고 누구나 숙제를 완수해왔다. 한 학생은 《장화홍련전》을 읽고 나서 “장화와 홍련은 계모 때문에 고생했는데 후에는 아버지마저 ‘계부’가 되어버려 너무 불쌍했다.”라고 써왔고 한 학생은 《선녀와 나무꾼》을 읽고 나서 “나무꾼이 부풀어오르는 욕망을 조금만 더 억누르고 참았더라면 선녀와 끝까지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써왔다. 또 한 학생은 《속향전》을 읽고 “속향이처럼 부지런하고 착한 마음으로 남을 대하면 꼭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써왔다. 비록 아주 짧은 글들이었지만 학생들이 옛이야기들을 진지하게 읽어봤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의 실제 상황에 알맞게 독서와 독서필기를 결합하게 하여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을 인도하여 대비와 가설을 하면서 읽게 했다. 즉 옛날과 현재를 비교하게 하고 옛이야기 속 인

물들에 대한 가설을 해보게 했다. 예를 들면 《장화홍련전》속의 악독하고 리기적인 계모와 현재 사회의 많은 선량하고 자애로운 계모를 대비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장화홍련전》속의 계모가 만일 이복자식인 장화와 홍련을 자기 자식처럼 잘 대해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가 하는 가설을 해보게 할 수 있다. 《선녀와 나무꾼》을 읽을 때 만일 선녀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나무꾼에게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가 하는 가설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독서에 한결 흥미를 가지게 되고 독서 효과를 높여게 된다.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옛이야기를 읽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필자는 학생들로 하여금 주제에 따라 옛이야기들을 분류하게 하고 그 제목들을 정리하여 적어오게 하였다. 이렇게 하니 학생들은 교실의 도서관이 되고 도서관, 서점에 가서 옛이야기들을 찾아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제목을 정리했다. 학생들은 지고지순한 사랑

을 노래한 《춘향전》,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 주제의 《흥부전》, 사람은 어디까지나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말고 자기의 지혜와 근면으로 살아야 한다는 리치를 깨닫게 하는 《토끼전》, 부패한 사회를 개혁해 새로운 세상을 이루려는 사상이 담긴 《홍길동전》 등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조선민족 옛이야기들을 주제에 따라 아주 잘 정리해왔다. 필자는 또 학생들을 인도하여 상상의 나래를 펼쳐 상술한 옛이야기들의 결말을 새롭게 엮어보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옛이야기에 담긴 리치, 사상, 교훈 등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독서 능력을 높여게 되었으며 글짓기 기초도 닦게 되었다.

옛이야기는 조선민족의 삶의 지혜와 교훈이 담긴 정신적 ‘고간’이다.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옛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옛이야기를 읽으며 이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고 좋은 독서 습관을 키우도록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 교원 김민화

연변도서관 개방시간



여름철

열람실 : 8:30—17:00
지습실 : 8:30—21:30

겨울철

열람실 : 8:30—17:00
지습실 : 8:30—21:00
(매주 월요일 오전은 폐관)연변도서관 주소 :
길림성 연길시 공원로 문화동거리 399호 (시내에서 4선, 16선, 37선, 38선, 46선 버스를 타고 주정부중심에서 내린 후 남쪽으로 100미터 되는 곳.)연계전화 :
도서관대여봉사 : 0433-2765723
지습실 자문 : 0433-2765729
신고전화 : 0433-2765717